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2023.10.20

미 증시, 공포지수(VIX) 급등에 하락 마감

김석환 seokhwan.kim@miraeasset.com

미 증시 동향: VIX 급등

•미 증시는 주요 기업들의 엇갈린 실적과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평가하며 주요 지수는 하락. 특히,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거의 5%에 육박하며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 이에 2년물과의 장단기금리차는 -21bp수준까지 크게 축소. 또한 시장은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 가중되는 모습을 보이자 유가는 상승 반전하고 국제 금 가격은 3개월래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 월가의 공포지수인 변동성지수(VIX)는 전일대비 10% 넘게 상승하며 지난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 기록. (다우 -0.75%, 나스닥 -0.96%, S&P500 -0.85%, 러셀2000 -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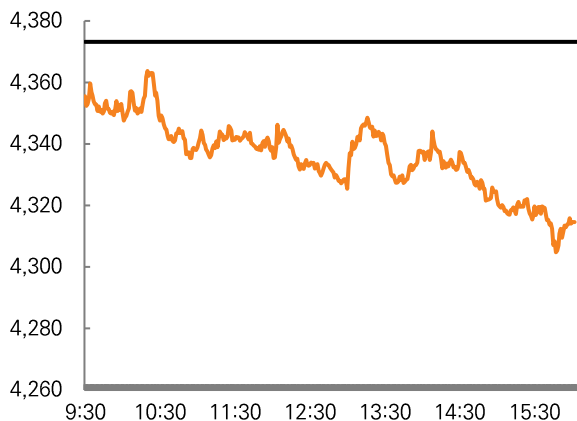
특징 종목: 테슬라 급락

•S&P 500의 주요 섹터 중 부동산(-2.45%)과 경기소비재(-2.20%)가 2%대 급락하며 하락을 주도. 이외 커뮤니케이션서비스(+0.32%)를 제외한 11개 중 10개 업종이 하락. 전일 장 마감 후,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9.30%)는 지난 7월 20일 이후 가장 큰 일일 낙폭을 기록. 실적 타라인 부진과 머스크 CEO의 비관적 전망이 주가 하방 압력 키워. 이에 주요 월가 IB들은 테슬라의 목표주가를 잇따라 낮춰. 골드만삭스, 트루이스트 등은 직전대비 11% 넘게 하향 조정. 이에 리비안(-5.14%), 루시드(-4.19%) 등도 약세. 반면 넷플릭스(+16.05%)는 3분기 시장 예상을 상회한 실적과 순 가입자 증가, 요금제 인상 계획을 밝히자 급등하며 S&P 500 구성종목 중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기록.

한국 증시 전망: 전저점 테스트

•MSCI 한국 지수 ETF는 1.30%, MSCI 신흥 지수 ETF는 0.59%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54.75원으로 이를 반영한 달러/원 환율은 4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46% 하락. KOSPI는 0.3~0.7% 내외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한국은행은 전일 열린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3.5%로 올 1월 이후 10개월째(6연속) 동결 유지. 그러나 같은 기간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3.67%에서 4.38%로 70bp이상 상승. 장기채 금리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 상승 가능성 배제 못해. 이는 국내 증시와 경기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 실제 코스닥 지수는 전일 갭 하락 후, 3% 하락하며 전저점(795p)을 이탈하였고, 코스피지수는 오늘 전저점(2400p)을 테스트할 것으로 예상.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415.80	-1.90	상해종합	3,005.39	-1.74
KOSDAQ	784.04	-3.07	홍콩항생	17,295.89	-2.46
DOW	33,414.17	-0.75	인도센섹스	65,629.24	-0.38
NASDAQ	13,186.17	-0.96	유로스톡스 50	4,090.33	-0.38
S&P 500	4,278.00	-0.85	영국	7,499.53	-1.17
캐나다	19,348.81	-0.52	독일	15,045.23	-0.33
일본	31,430.62	-1.91	프랑스	6,921.37	-0.64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변화 요인

① 테슬라 ② 파월

미 증시는 주요 기업들의 엇갈린 실적과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평가하며 주요 지수는 하락. 특히,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거의 5%에 육박하며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 이에 2년물과의 장단기금리차는 -21bp수준까지 크게 축소. 또한 시장은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 가중되는 모습을 보이자 유가는 상승 반전하고 국제 금 가격은 3개월래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 월가의 공포 지수인 변동성지수(VIX)는 전일대비 11% 넘게 상승하며 지난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 기록.

하락: 테슬라, 파월, 전쟁

전일^{*18일} 현재시각 기준 장 마감 후,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는 9.3% 하락하며 지난 7월 20일 이후 가장 큰 일일 낙폭을 기록. 특히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실적 발표 후 진행된 컨퍼런스에서 현재의 경제 상황을 ‘폭풍’으로 비유하며 매우 도전적이라고 밝힌 점이 향후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며 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 골드만삭스, 웨드부시 등 월가 주요 IB들은 일제히 테슬라의 목표주가(또는 투자 의견)에 변화를 주었는데, 테슬라의 목표주가는 일주일 전 대비 4.7% 하락. 국내 증권정보포털 Seibro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은 테슬라를 약 13.8억 달러^{*17일 기준}나 보유.

오늘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주의 깊게 살펴본 건 바로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음. 그는 다양한 불확실성과 통화정책의 과소 또는 과잉 긴축의 위험, 그리고 그 동안의 긴축으로 인해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또한 최근 고무적인 인플레이션 둔화, 노동시장의 수급 균형 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추세이상의 성장에 대한 증거가 더 많거나 노동시장이 더 이상 완화되지 않을 경우 추가 통화 정책 긴축이 필요하다고 언급. 또한 최근 장기 국채 중심의 수익률 상승으로 금융여건이 긴축되고 있지만, 더 높은 인플레이션이나 통화정책 전망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혀.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엇갈리게 나타났는데, 연준의 통화정책 의지를 반영하는 2년물은 하락한 반면, 경기에 민감한 10년물은 상승하며 장단기금리차는 -18bp 수준으로 지난 해 9월 초 이후 가장 높은(역전 폭 축소) 수준을 기록.

파월 의장 발언 이후 전해진 **중동의 불안한 정세**도 시장의 투자심리를 악화.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했지만 ‘6시간’ 밖에 머물지 않으면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점과 지난 주 가자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할 것이라는 이스라엘의 강경한 의지가 이 날 다시 한 번 부각되며 지정학적 우려 키워. 또한 이라크와 시리아에 있는 미군기지가 공격을 받은 점도 이스라엘-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이 중동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잠재적 우려 확산.

Eco 리뷰: 실업수당, 기존주택판매,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전주보다 1만 3천명 감소한 19만 8천명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21만 2천명)을 하회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9월 기존주택 판매건수**는 전월대비 2% 감소한 396만채로 2010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나 시장 예상 389만채는 상회. 반면, 기존주택 중간 판매가격은 전년대비 2.8% 상승한 39만 4,300달러를 기록. **필라델피아 연에서 발표한 지역 제조업지수**는 9월 -13.5보다 개선된 -9.0을 기록했지만, 시장 예상(-7.0)은 하회. 한편, 컨퍼런스보드에서 발표한 미국의 **9월 경기선형지수**는 18개월 연속 둔화한 -0.7%를 기록하며 전월 수정치 -0.5%(v.-0.4%)와 예상 -0.4%를 하회.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부동산, 경기소비재 2%대 급락

S&P 500의 주요 섹터 중 부동산(-2.45%)과 경기소비재(-2.20%)가 2%대 급락하며 하락을 주도. 이외 커뮤니케이션서비스(+0.32%)를 제외한 11개 중 10개 업종이 하락. 전일 장 마감 후,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9.30%)는 지난 7월 20일 이후 가장 큰 일일 낙폭을 기록. 실적 탐라인 부진과 머스크 CEO의 비관적 전망이 주가 하방 압력 키워. 이에 주요 월가 IB들은 테슬라의 목표주가를 잇따라 낮춰. 골드만삭스, 트루이스트 등은 직전대비 11% 넘게 하향 조정. 이에 리비안(-5.14%), 루시드(-4.19%) 등도 약세. 또한 블랙스톤(-7.90%)은 자산 매각이 수익에 영향을 미치며 시장 예상을 하회 한 실적을 발표하자, 동일 업종이 크라운캐슬(-5.54%), 코스타그룹(-4.79%) 등도 약세. VM웨어(-9.59%)는 중국 규제기관이 브로드컴(-2.16%)의 인수를 보류할 수도 있다는 파이낸셜타임즈(FT) 보도에 하락.

반면 넷플릭스(+16.05%)는 3분기 시장 예상을 상회한 실적과 순 가입자 증가, 요금제 인상 계획을 밝히자 급등하며 S&P 500 구성종목 중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기록. AT&T(+6.56%) 역시 시장 예상을 상회한 실적과 모바일 가입자 증가, 가이던스 상향 영향에 강세. 유니온퍼시픽(+2.14%), 라스베가스 샌즈(+2.87%) 등은 시장 예상보다 나은 실적을 발표하며 상승.

상품 및
FX시장 동향

국제 금 강세, 유가 상승 반전

국제 금 가격은 3개월래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고, 국제유가는 장 초반 하락 출발했지만 장 후반 중동의 지정학적 우려가 커지자 상승 반전한 후 상승 폭 확대하여 마감.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이 중동 정세 안정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점과 가자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하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강경한 의지가 이 날 다시 한 번 부각되며 지정학적 우려 키워. 또한 이라크와 시리아에 있는 미군기지가 공격을 받은 점도 이스라엘-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이 중동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잠재적 우려 확산. 여기에 요르단 외무장관은 모든 징후를 고려해볼 때, 현재 진행 중인 가자 전쟁에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힌 점도 부담으로 작용. 그럼에도 달러 가치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시장의 추가 낙폭을 제한. 미국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기록적인 생산량, 온화한 날씨와 재고 증가 영향으로 3% 하락하며 2주만에 가장 낮은 MMBtu(백만열단위 당) 3달러를 하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전저점 테스트

MSCI 한국 지수 ETF는 1.30%, MSCI 신흥 지수 ETF는 0.59%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354.75원으로 이를 반영한 달러/원 환율은 4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46% 하락. KOSPI는 0.3~0.7% 내외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한국은행은 전일 열린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3.5%로 올 1월 이후 10개월째(6연속) 동결 유지. 그러나 같은 기간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3.67%에서 4.38%로 70bp이상 상승. 美 장기채 금리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 상승 가능성 배제 못해. 이는 국내 증시와 경기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 실제 코스닥 지수는 전일 갭 하락 후, 3% 하락하며 전저점(795p)을 이탈하였고, 코스피지수는 오늘 전저점(2400p)을 테스트할 것으로 예상.



전기차, 2차전지 ETF 약세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0.75	대형 가치주 ETF (IVE)	-1.42
클린테크 ETF (CTEC)	-1.38	중형 가치주 ETF (IWS)	-2.12
소매업체 ETF (XLY)	-2.33	소형 가치주 ETF (IWN)	-2.08
온라인소매 ETF (EBIZ)	-2.01	대형 성장주 ETF (VUG)	-1.59
미국 인프라 ETF (PAVE)	-3.72	중형 성장주 ETF (IWP)	-1.91
핀테크 ETF (FINX)	+0.20	소형 성장주 ETF (IWO)	-2.17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0.06	퀄리티 배당주 ETF (QDIV)	-0.47
클라우드 ETF (CLOU)	-1.90	신흥국 고배당 ETF (SDEM)	+0.12
사이버보안 ETF (BUG)	-0.47	신흥국 저변동 ETF (EEMV)	-1.19
전기차&자율주행 ETF (DRIV)	-3.07	미국 국채 ETF (IEF)	-0.47
글로벌 2차전지 ETF (LIT)	-4.06	하이일드 ETF (JNK)	-0.52
바이오섹터 ETF (IBB)	-2.10	신흥국 채권 ETF (EMBD)	+0.20
로봇&AI ETF (BOTZ)	-3.15	물가연동채 ETF (TIP)	-0.21
반도체 ETF (SMH)	-2.00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80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커뮤니케이션	229.91	+0.33	-0.71	-0.16
에너지	703.32	-0.13	+4.77	+0.37
IT	2,951.79	-0.44	-2.97	-1.55
필수소비재	713.52	-0.78	+1.95	-5.51
산업재	843.88	-0.90	-2.83	-4.36
유틸리티	297.76	-0.93	+0.00	-8.49
헬스케어	1,497.94	-0.96	-0.64	-2.41
소재	480.13	-1.08	-2.12	-5.84
금융	543.46	-1.39	-1.35	-6.03
경기소비재	1,216.55	-2.20	-4.26	-8.60
부동산	206.44	-2.44	-4.15	-8.83

글로벌 FICC 동향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89.37	+2.56	+9.25	Dollar Index	106.230	-0.31	-0.35
브렌트유	92.38	+2.09	+8.62	EUR/USD	1.0581	+0.43	+0.50
천연가스	2.96	-3.08	-11.42	USD/JPY	149.83	-0.07	+0.01
금	1,980.50	+0.87	+5.44	GBP/USD	1.2139	-0.01	-0.30
은	23.03	+0.20	+5.40	USD/CHF	0.8911	-0.88	-1.90
알루미늄	2,185.00	+0.14	-0.68	AUD/USD	0.6328	-0.13	+0.22
전기동	7,993.00	+0.26	+0.03	USD/CAD	1.3721	+0.04	+0.23
아연	2,414.00	-0.92	-1.45	USD/RUB	96.7801	-1.22	-0.97
옥수수	505.00	+2.69	+1.86	USD/BRL	5.0591	0.00	+0.17
밀	594.00	+2.37	+3.94	USD/CNH	7.3365	+0.12	+0.37
대두	1,315.50	+0.46	+2.09	USD/KRW	1,357.40	+0.58	+1.41
커피	163.95	+3.73	+9.81	USD/KRW NDF1M	1,354.75	+0.12	+0.54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4.990	+7.49	+29.29	스페인	4.038	-1.90	+13.90
한국	4.360	+7.50	+26.80	포르투갈	3.646	-1.10	+12.50
일본	0.840	+3.10	+8.20	그리스	4.413	-1.10	+12.20
독일	2.931	+0.70	+14.50	이탈리아	4.946	-3.60	+18.3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